

# 조선후기 제주도 한동리 김해김씨 김덕경 가계와 이들의 경제기반

- 김덕경 가계의 '상속 및 거래' 문서를 중심으로 -

이옥부\*

## 목 차

1. 머리말
2. 金德鏡 가계의 移住와 한동리 정착
3. 전승고문서의 특성과 경제 관련 문서들
4. 김덕경 가계의 경제 기반과 그 변화
5. 맺음말

## [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제주도 한동리의 김해 김씨 가문을 대상으로, 특정 가계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여 가는 과정을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해 김씨 가문에서 전승해 온 방대한 고문서를 분석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도의 경우 특정 가계에서 고문서가 전승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 가계에 대한 연구도 축적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특정 가계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밝히려는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연구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논의의 중심은 18세기 중반 이후 장남이 아닌 삼남의 가계로서 점차 김해 김씨 가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가계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이다. 조상을 위한 祭田을 자손들이 나누어 기졌으나 이후 점차 삼남 가계로 집중, 관리되어 나가는 변화는 이 같은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함께 삼남 가계에서 문서들을 집중 관리하면서 전승해온 것도 이것을 뒷받침하여 준다.

삼남의 이러한 역할은 토지 집적을 통하여 한동리에서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장남의 후손들은 한동리를 떠나 인근 지역으로 移住하였는데, 이것은 장남과 그 후손이 한동리에서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지 못했고 이주한 지역에서도 그러했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

던 것도 작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지역에 장남과 그 후손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위를 확립한 삼남 가계가 제사권을 행사하면서 김해 김씨 가문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 연구는 분재기는 물론 각종 명문과 수표를 모두 분석하여 그 구체적인 변화를 추적하였다. 제전이 장남이 아닌 비장남계의 특정 가계로 집중되고, 이들이 종손이나 종가의 위상을 차지해 가는 변화는 조선 후기 종법 및 여기에 기초한 종족의 주형과는 맞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저명한 인물을 배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를 만드는 한국 종족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제주도의 특수성을 내세우는 것을 경계하려 했다. 요컨대 조선 후기 가계의 확립 과정에서 지나치게 종족 규범에 기초한 동질적인 역사상 대신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려 하였다. 한동리에 세거했던 김덕경 가계의 경제적 기반의 형성과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는 방대한 고문서를 활용한 첫 작업이다. 이것은 가족과 친족의 형성에서 경제적 지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방대한 문서 덕분에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조선 후기, 제주도, 가계, 경제기반, 상속, 거래, 토지매입, 종족화, 분재기, 명문, 무임

## 1. 머리말

이 연구는 조선후기 제주도 북쪽의 한동리에 세거하여 온 김덕경(1741~1795)의 후손들이 이 지역 김해 김씨의 중심으로 부상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의 경제 기반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김덕경은 17세기 중반 제주도 남쪽의 대정현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인근의 별방진에서 무임을 역임하였다. 그는 네 형제 중 셋째 아들인데, 그의 직계 후손들은 다른 형제들의 후손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손 가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혈연 집단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 같은 양상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김덕경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1) 조선후기 행정 편제에 따르면 김덕경 가계의 거주지는 제주목(구)좌면 평대리이다. 그러나 1914년 행정 구역의 통폐합에 따라 방축동 일대만 평대리에서 떨어져 이웃 한동리에 병합되었다. 김덕경의 세거지가 평대리에서도 방축동 일대라는 점, 그리고 문서에서 확인되는 경제기반의 대부분이 한동리에 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세거지를 현재의 지명을 따라 '한동리'로 표기하기로 한다.

장남이 아닌 삼남의 가계가 어떻게 김해 김씨의 구심점으로서 이들을 끌어가는 책무를 갖게 되었던 것일까? 김덕경의 직계 후손들은 喪葬禮는 물론 혼인 등 김해 김씨 가문과 관련된 일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그의 후손들이 혈연 집단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환경과 요인은 무엇인가? 이 가문에는 적지 않은 고문서들이 전승되어 왔는데 이 연구는 바로 이것을 토대로 출발하고 있다.<sup>2)</sup> 김해 김씨는 제주도 지역의 친족의 특성과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렇듯 장남이 아니면서도 혈연 집단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가계는 김덕경의 가계 외에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연구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종족화의 경향이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력한 가문은 거의 없으며 가계 문서의 발굴도 비교적 최근부터 이루어졌다. 김덕경은 한동리에 세거하면서, 사회 지위를 배경으로 경제 기반을 확장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직계 후손들이 혈연 집단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다양한 층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제주도 지역의 경우 최근 가문에서 전승되어 온 고문서들의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그리하여 호적중초나 洞里 문서 등을 중심으로 직역, 여성 혹은 촌락 등에 집중되었던 연구들이<sup>4)</sup> 이제는 개인이나 가문으로

2) 이들 문서들은 후손인 동아대 김광철 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김광철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이들 문서는 현재 정리를 마쳤으며 곧 출간할 예정이다. 이옥부·이훈상, 2015, 『조선후기 제주도 한동리 김해 김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3) 최근 발굴된 문서 중 가장 최근에 공간된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4, 『제주 어도 진주강씨 조친 김해김씨 구와 동래정씨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110.

4) 호적중초를 활용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저들이 있다. 이창기, 1999, 『19세기 말 제주도의 가족과 혼인-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김동진, 1997,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허원영, 2013, 『19세기 제주도의 호적제 운영과 가족제도의 변화』, 『장서각』 30; 김창민, 2010, 『호적중초에 나타난 19세기 제주도 가족과 가구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그리고 사계리 호적중초 발굴 특집호인 『제주도연구』 23(2003)에 실린 글들도 주목된다. 이 밖에 민적부와 호적을 함께 활용한 연구로는 김건태, 2009, 『18-19세기 제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대동문화연구』 65; 김경란, 2007,

도 확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문이나 종족’ 등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sup>5)</sup> 발굴된 문서들의 경우 육지에서 발굴된 문서와 양식의 차이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혈연집단의 다양한 층위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한 사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정 가계를 사례로 한 역사적 연구는 근대 이후 가족 및 여성, 제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연구 성과를 축적해온 인류학적 연구 성과들과<sup>6)</sup> 새로운 길항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는 지리적,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육지와와의 차별성이 부각된 대표적인 곳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며 장자우대 상속이나 제사봉행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육지와 유사한 양상에도 주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인지하면서, 일반화에 앞서 전승 고문서를 통해 한 가계의 실제적인 모습과 그 변화 과정을 최대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아래 출발한다.

이 연구가 가능한 것은 김덕경의 후손들에게 고문서가 전승되어 왔기 때문인데, 이들 문서들은 김덕경의 선조의 것부터 남아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724년(경종 4)부터 1915년까지 대략 200여년에 걸쳐 있다. 문서의 양은 226점에 이르며, 여기에는 비록 많이 산일되어 있지만 호적중초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본고에서는 먼저 재부의 축적과 분배를 주목하려 한다. 그리하여 ‘상속과 거래’의 실상을 담고 있는 분재기, 명문 그리고 수표 등 경제 문서를

『호적과 민적을 통해 본 제주 지역사회의 구조와 갈등』, 『대동문화연구』 57 등이 있다. 대부분 한 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 5) 전승고문서를 토대로 제주도 지역의 가계나 문중을 분석한 연구로는 각별히 고창석과 김동전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동전, 1998, 『조선후기 제주고씨 일가의 호구자료 분석』, 『탐라문화』 19. 고창석은 제주도 각지의 고문서를 발굴, 분석하여 그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고창석, 2001, 『濟州道古文書研究』,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6)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이 주목된다.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이창기, 앞의 책;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泉靖一 著, 김종철 역, 2014, 『제주도』, 여름언덕.
- 7) 문숙자, 2006, 『조선후기 제주 지역의 재산상속과 봉사 관행 -분재기 분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1.

우선적으로 논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규명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생활여건을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게다가 좁게는 직계의 가족 구성원, 좀 더 넓은 범주로는 혈연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결집이나 離散의 원인 및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와 사회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시야에 넣고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에도 주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덕경과 그 후손들은 무임을 역임하였고 이것은 그의 경제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무임 가계의 경제 기반과 그 변화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장남이 아니었던 김덕경의 사례를 통해 개인의 욕망이나 성취동기가 조선후기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나아가 그의 직계가 혈연집단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과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의 역동성을 밝히는데도 기여할 것 같다.

## 2. 金德鏡 가계의 移住와 한동리 정착

1917년 한동리 지역을 측량한 지형도에 따르면 김덕경 가계의 세거지는 주변 지역에 비해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sup>8)</sup> 당시 김덕경의 후손들은 평대리와 접경을 이룬 지역을 비롯하여 한동리 곳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sup>9)</sup> 토지 대부분은 서로 인접해 있었지만, 몇몇 토지는 멀리 떨어져있었고 그 규모도 적지 않았다.

한동리에 김덕경의 가계가 이주한 것은 17세기 중반 무렵으로,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방축동 일대였다. 방축동은 한동리를 대표하는 둔지봉(해발 282m)의 동쪽에 위치하여 높은 지대의 대지가 해안까지 뻗어 내린 곳으로,

8) 朝鮮總督府 편, 1918, 『朝鮮五萬分一地形圖[25-1-3]: 金寧(濟州島北部三號)』, 陸地測量部.

9) 朝鮮總督府, 1914, 『全羅南道 濟州郡 舊左面 漢東里 原圖』, 국가기록원 소장.

주변에 모래가 유난히 많은 지역이다. 1910년경 마을 주민들이 1km정도 떨어진 해안가 마을로 옮겨간 이후 폐촌이 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았던 곳이다. 조선후기 행정편제에 따르면 한동리는 제주목 관할로, 1874년(고종 11) 이밀희(李密熙) 목사에 의해 신좌면과 구좌면이 분리되면서 구좌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당시 구좌면은 서쪽으로 동북리, 동쪽으로 종달리를 경계로 하여 서김녕리, 동김녕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등 모두 14개의 리를 포함하였다.<sup>10)</sup>

김덕경의 선조는 1660년경 제주도 남쪽의 대정현 沙溪里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왔다.<sup>11)</sup> 구전에 따르면 한동리에 김촌이 형성된 것도 이 무렵으로, 방축 동에는 제주 고씨 영동공파의 선조(高起宗)가 가장 먼저 정착했다고 한다(1650년경). 이후 김해 김씨와 군위 오씨가 연이어 방축동 일대로 이주, 정착하면서 이곳은 고씨·김씨·오씨의 집성촌이 되었다.<sup>12)</sup> 이들은 이주할 때까지 거의 300년 이상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면이 증첩된 혼인관계에서 잘 드러나는데, 김덕경 가계에서 전승하고 있는 가첩이나 묘지명, 호구자료는 18~19세기 무렵 이들 세 성씨가 빈번하게 증첩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당시 촌락 내혼의 높은 비율은 한동리 지역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호적증초를 토대로 제주도 지역의 혼인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조선후기 제주도 각지에서 이처럼 높은 촌락 내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김씨 가문의 한동리 입향조 元山은 조선건국 초기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김해 김씨 金萬希(1314~1404, 황해도 출생)의 14세손으로 전해진다. 김만희는 10여년의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91세의 나이로 고향 황해도로 돌아갔는데, 당시 자식들과 동행하지는 않았다.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정치적

10)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편, 1997, 『둔지오름-한동리지』, 경신인쇄사, 105쪽.

11) 김해김씨 신방계 종친회, 1999, 『金海金氏左政丞公派 信邦系世譜』, 내내로전자출판.

12) 防禦窟[방축동]에서 ‘방축’은 ‘방축’이라고도 하는데, 물의 침범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이라는 뜻이다. ‘굴’은 제주어로 ‘계’의 의미로, 주위가 절벽과 같은 바위 등으로 가로막히고 땅이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지형을 나타내는 지명에 붙인 말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편, 앞의 책, 377쪽.

13) 권오정, 2003,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율과 촌락 내 혼인관계』, 『제주도연구』 23; 이창기, 앞의 책, 267쪽.

격변을 겪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부친의 뜻을 따라 제주도에 정착했다. 단일 가계로 계승되던 이 가문이 분파한 것은 입도조의 7세손 用砥의 아들 8명이 제주 각지로 흩어지면서 부터이다. 이들 아들들의 돌림자는 모두 ‘邦’으로, 후손들은 이들을 ‘8방’이라 부른다. 김덕경의 가계는 이 중 막내인 信邦계의 후손으로, 원산은 신방은 증손자이다. 신방의 묘가 대정현 사계리에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사후 이들 가계가 한동리로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바로 다음 세대에 속하는 以彦과 奉天의 묘가 실전되어 이들이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이주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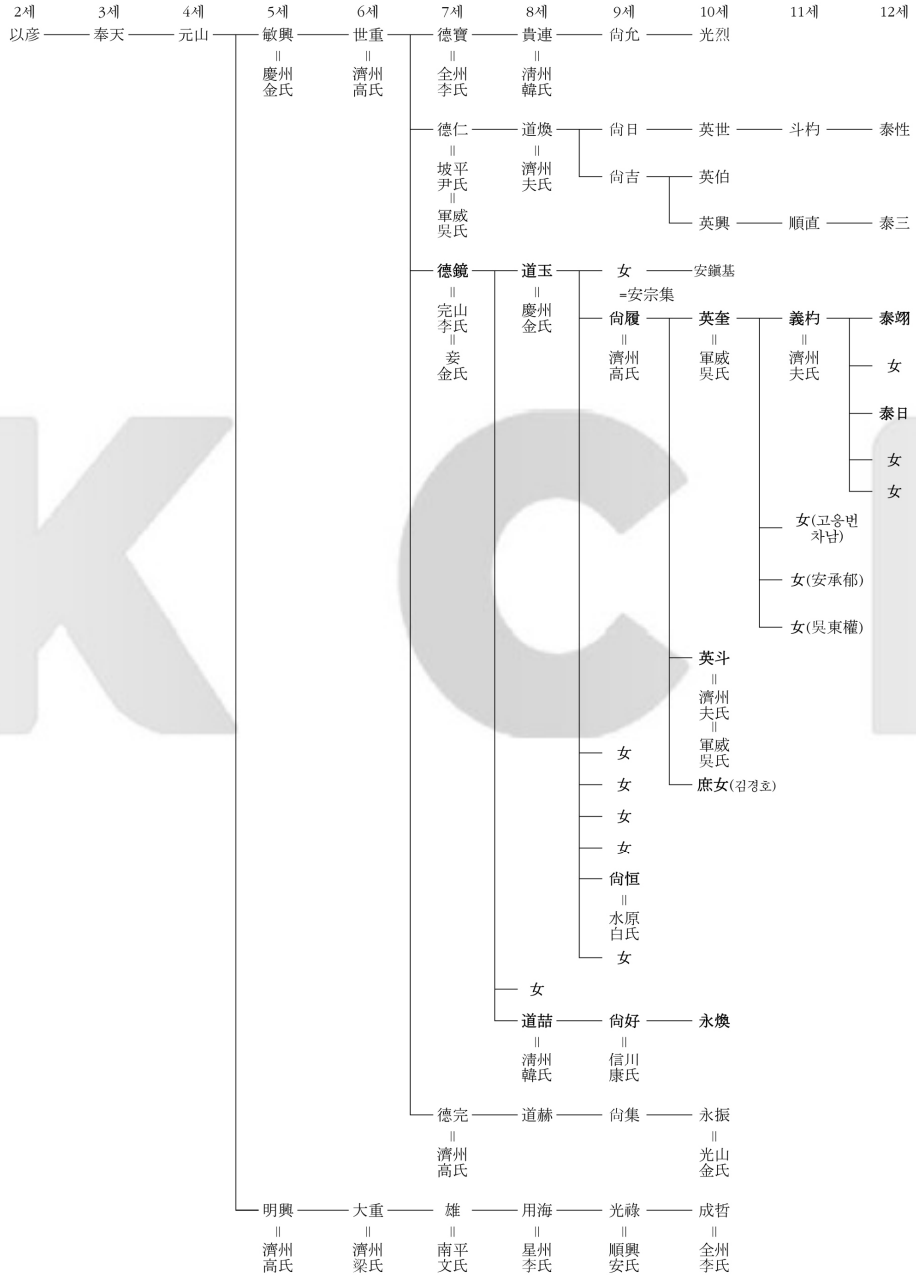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김덕경 가계에서 전승하고 있는 고문서들을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써 먼저 세계를 재구성하였다. 출간된 족보가 있지만 매우 부실하여 이것을 참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sup>14)</sup> 또한 딸들의 세계 구성도 문제가 많은 편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에서 여성의 위치는 육지의 그것과 비교해서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지위나 재산 소유의 문제, 나아가 결혼과 관련하여 육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높은 이혼율이나 가계 내에서 첩이 차지하는 위치 등은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이다.<sup>15)</sup> 그런데 김덕경 가계의 경우는 과거의 가첩이나 묘비명에서도 딸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사위에 대한 기록도 충실하지 않다. 경제문서 등에 사위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보이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그리하여 호구자료나 분재기 등 가족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기본 토대로 명문 등 경제문서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여 딸과 사위까지 포괄한 세계를 구성하여야 했다. 아래는 김덕경 가계의 세계도이다.

14) 1990년대 후반 종친회에서 『金海金氏左政丞公派 信邦系世譜』를 발간했지만, 최근 족보로는 드물게 선조들의 생몰년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이 부정확한 편이다. 게다가 딸들에 대한 사항은 수록하고 있지 않아 세계 구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 김해김씨 신방계 종친회, 앞의 책.

15) 이성일, 2007, 『19세기 제주 대정현 읍치 거주민의 혼인양상』, 『대동문화연구』 57, 7~29쪽; 김진태, 앞의 글, 311~349쪽; 이창기, 앞의 책, 229~280쪽; 김혜숙, 앞의 책 등 다수의 논저서가 있다.

<세계도> 김덕경 가계의 세계도(派祖 信邦으로부터 세대를 적었다.)

※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김덕경의 직계 후손들이다.





위의 세계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동리에 정착한 김해 김씨 가문의 세계는 후대까지도 비교적 소략한 편이다. 이것을 가문 내 구성원들의 수가 많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고문서를 전승해온 김덕경의 가계와 비교하면 타 가계들은 세계가 끊어지거나 독자로 이어지는 가계가 많다. 이러한 편향된 가계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부 가계는 세거지를 떠나면서 더 이상 상호간에 연망을 이어가지 않았고, 그 결과 선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이들을 붙잡아둘 경제적 동인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때문에 한동리에 계속 세거한 가계와 떠난 가계를 구분하고,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유추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동리에 세거했던 덕경의 가계와 토지를 팔고 인근 김녕리로 이주한 장남의 가계는 경제적 기반에서 차이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사실들은 김해 김씨 가문이 17세기 중반 한동리에 정착한 후 18~19세기, 혹은 20세기 전반까지도 혈연 집단의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족보 편찬에 주도적이었던 김덕경의 가계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족보는 입향조 4세 원산부터 덕경의 직계 후손인 10세 영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남자 구성원들의 생沒日을 기재하지 않았다. 족보 편찬에서 가장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빠진 것이다. 가계별로 직계 선조들의 생몰일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정보가 가문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3. 전승고문서의 특성과 경제관련 문서들

김덕경의 직계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온 고문서는 6대, 200년(1724~1924)에 걸쳐 있다. 고문서가 김덕경의 직계 후손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들의 위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김덕

경의 가계는 삼남 가계였지만, 김씨 가문의 구심점으로 부각되며 사실상 종손의 지위 차지하였다. 고문서의 전승도 이들 가계의 책무 및 위상을 보여주며 전승 자체가 곧 이들의 이러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김씨 가문의 전승고문서는 한동리에 세거한 김씨 가문 중에서도 덕경-도옥-상리-영규-의표-태익으로 이어지는 김덕경의 직계 후손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 덕경의 형제들과 관련된 호구자료 몇 점과 덕완의 후손 영진이 받은 교지 2점(1882년)이 함께 전승되고 있다. 덕경의 형제들이나 이들의 후손과 관련된 문서들이 덕경의 가계를 통해 전승된 것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한동리에 세거한 김씨 가문의 사회적 위치 및 가족 구성 등을 다루는 논문에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러한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만 한다.

고문서 중 작성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는 입향조의 손자 김덕경과 관련된 것으로, 그의 장인 李才星(完山 李氏, 통정대부)이 수급자로 나오는 1746년(영조 22)의 明文이다. 덕경과 처가의 관계를 주목하게 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직계 가족 중에는 1762년(영조 38) 김덕경(22세)이 발급받은 준호구가 가장 빠른 것이다. 반면에 가장 늦은 시기의 문서는 1915년 김태익(김덕경의 5대손)이 직접 관여하여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와 매매신고서이다.

전승 고문서는 226점으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굴된 단일 가계의 문서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sup>16)</sup>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여 한 가계의 사회, 경제적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기에도 적합하다. 문서들을 크게 5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16) 고창석이 발굴하여 소개한 장전리 강태복씨 소장 고문서의 경우 전담매매문기만 126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고창석, 앞의 책, 225~229쪽). 이를 제외하면 최근 발굴되어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몇몇 가계를 제외하면 단일 가계로서 200여점 이상을 보유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4, 앞의 책.

<표 1> 김덕경 가계의 전승 고문서

범주	문서종류	매수	범주	문서종류	매수
국가의 호구 파악 및 편제	준호구(호구단자 포함)	41	가족관계	家牒, 忌日錄 및 墓碑銘 등	13
	호 적 중 초	45		所志(上書포함)	7
상속과 거래	分 財 記	24	기 타	婚 書	8
	明 文	48		葬事擇日紙	12
	手 標	9		詩 文	3
사회적 위상	教 旨	4	기 타	기 타	6
	傳 令	2			
	望 記	2			
	差 帖	2			

전승고문서 중 가장 많은 것은 준호구나 호적 중초 등 호구관련 자료들이다. 제주도의 경우 다수의 호적중초가 발굴되어 이미 학계에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sup>17)</sup> 최근에는 개별 가계나 문중 고문서의 발굴도 속도를 내면서 호구 관련 자료의 축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편이다. 이에 따라 호구 자료를 기본 텍스트로 삼은 연구 성과들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로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의 가족이나 지역민의 구체적 실상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호구 파악이나 편제에

17)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호적중초가 발굴, 알려진 지역은 모두 22곳으로, 대부분은 19세기의 것들이다. 이를 지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정리하였다). 허원영, 2014, 『제주 애월읍 수산·중엄·하가리 고문서와 조선후기 제주의 부세운영』, 『제주 애월 수산리·중엄리·하가리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108, 19쪽.

호적중초 확인 지역	
제주시	도두리
애월읍	중엄리, 광지리, 하가리, 수산리, 상가리, 장전리
한경면	낙천리
대정읍	일파리, 안성리, 하모리
안덕면	덕수리, 사계리
서귀포시	상예리, 하예리, 회수리, 중문리, 대포리, 하원리, 도순리, 월평리
성산읍	신흥리

나타나는 국가 권력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호구 자료들을 ‘국가의 호구과악 및 편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김덕경 가계에서 전승한 호적 증초들은 자기 가문 구성원들의 것만 별도로 발췌한 흔적이 남아있어 차후 본 주제 안에서 시선을 ‘국가권력과 개인’의 문제까지 확장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다음은 ‘상속과 거래’의 주제아래 묶은 경제 문서들이다. 여기에는 김덕경 가계의 구체적인 상속관행과 상속 재산의 종류 및 규모를 보여주는 분제기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답이나 가옥 등 기본적으로 매매와 관련된 명문과 수표도 묶었다. 경제 문서는 기본적으로 김덕경 및 그의 직계 후손들의 구체적인 경제 기반, 즉 재산의 규모와 위치, 시기에 따른 변동 상황 등을 재구성 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아울러 간접적이지만 한동리 지역민들의 경제 기반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위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김덕경과 그의 직계 가계가 차지했던 사회적 위상을 재구성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경제문서와 연계한다면 장남가계가 아니었던 김덕경 가계의 후손들이 김해 김씨 가문에서 주도적인 가계로 인식되어가는 계기나 과정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위상의 상호관계가 한 개인이나 혈연 집단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할 것이다.

한편, ‘문중의식’ 등 조직화와 관련하여 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들이나 ‘통합’과 ‘구별짓기’를 통해 가계 구성원들을 재규정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들은 ‘가족관계’라는 주제아래 하나로 묶었다. 여기에는 소지나 상서도 포함하였다. 소지나 상서는 흔히 개인이나 가문의 사회적 위상이나 경제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다. 김덕경 가계에서 전승한 소지나 상서 또한 偷葬이나 山訟 등 김씨 가문의 공동재산을 둘러싼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이 문서들을 ‘가족관계’ 문서로 분류한 이유는 호구자료나 가첩 등 다른 자료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서열’의 존재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이 밖에 문서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서나 시문 등은 기타 문서로 규정하여 별도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주제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논문을 통해 다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이 중 경제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상속과 거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김덕경 가계의 경제 기반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규범과 다르게 비장남 가계가 장남 가계로 굳어져가는 과정에서 경제기반이 차지하는 역할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김덕경 가계의 한동리 이주 이전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추정할 만한 직·간접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한동리 이주 후에는 구성원들의 다수가 별방진에서 하급 武任職을 꾸준히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는 첫 무임직은 김덕경의 부친, 金世重이 역임한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이다. 이 같은 사실은 1765년(영조 41) 김세중과 그의 부인 고씨에게 발급된 2점의 교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세중은 직역의 변화 없이 증손자 상리의 호구자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sup>19)</sup> 덕경이 ‘前把總’과 ‘馬監’<sup>20)</sup>의 직을 역임했음을 보여주는 문서(1769년의 전령 2점)가 남아있음에도, 이미 아들 도옥의 호구자료에서는 ‘학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중을 이어 그의 네 아들, 덕보, 덕인, 덕경, 덕완도 모두 무임직을 역임했다. 호구자료에 따르면 1780년(정조 4) 아들 4명 모두가 단독 가구를 구성하며 호주가 되는데,<sup>21)</sup> 장남 덕보는 前將官, 차남 덕인은 旗牌官, 삼남 덕경은

18) 서얼의 존재는 1834년 김상리(前掌議)의 준호구에서 率庶女가 나타나면서 처음 확인된다. 그러나 1860년대 작성한 소지나 묘지문을 보면 이미 덕경의 아들 중에 서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 김세중은 그를 증조부로 등재한 1846년(헌종 12)의 嗣生 김상리의 호적증초에 마지막으로 나온다.

20) 1735년(영조 11) 제주목사 兪정이 장계를 올려 普役인 마감에게 悭료를 지급할 것을 건의하면서 처음으로 마감에게 悭료가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목장 내 경작지에 대한 수세를 단행함으로써 이를 마감, 목자의 料米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권인혁, 1996,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실태-제주』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 99쪽.

21) 1780년 김세중의 네 아들은 모두 호주가 된다. 이는 장남을 제외한 세 명의 아들들을 호주로 기록한 준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남의 준호구는 찾아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이름이 동생들의 준호구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역시 독립 호를 구성했을 것 같다.

前把總 그리고 막내 덕완은 前城將이다. 이 중 별방진에서 포폄의 대상이 된 것은 ‘과총’ 뿐으로, 덕경이 형제들에 비해 비교적 상급 무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한편, 덕경의 두 아들, 도옥과 도철 또한 前城將으로 무임직을 역임했다. 그러나 도옥의 아들 상리는 선조와 달리 초기의 향교 관련 직역 이후 1830년대에는 掌議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김덕경 가계의 직계 후손들은 더 이상 무임직을 맡지 않는다. 이후 후손들은 三姓祠의 掌議나 留鄉別監을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호구자료나 망기, 차첩 그리고 혼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비교적 빨리 무임직을 벗어났던 덕경의 후손들과 달리 다른 가계의 후손들은 긴 시간 실제로 무임직을 역임했거나 무임직을 역임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덕완의 가계가 대표적인데, 1882년(고종 19)의 교지 2점은 후손 영진이 ‘통정대부’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되었음을 보여준다.<sup>23)</sup> 이 밖에 장남과 차남 가계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어 이들이 세거지를 떠났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sup>24)</sup>

이처럼 덕경과 그의 형제들은 부친을 이어 모두 별방진의 무임으로 근무했지만 이후 후손들의 사회적 진출은 전혀 달랐다. 삼남이었던 덕경의 후손들은 혈연 집단 내에서 主孫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주도적인 가계로서 입지를 굳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엇이 혈연 집단으로 하여금 조선시대 중법의 규범과 맞지 않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수많은 물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기반 그리고 이주의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덕경의 사

22) 김상욱, 1997,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강창룡 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57쪽.

23) 윤인수, 2009, 『일제시대에 발생한 대한제국시기 임명장 위조의 양상과 사회적 배경: 농촌의 신분 의식 잔존 양상과 관련하여』, 『고문서연구』 34, 36쪽.

24) 전승하고 있는 다른 문서들을 통해 추론해 볼 때 장남과 차남의 가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동리(당시 평대리)를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남 덕보의 아들 귀련은 이미 19세기 초반에 세거지를 떠나 인근 김녕리에 정착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축동에 있는 祭田의 경적이 쉽지 않음을 호소하는 명문이 남아있다.

“右明文事段 吾之先祖掃祭條 旧家基米傘壹斗貳刀付田 在於防禦洞里內員 而其四標段 … 吾居於金寧里 而出入耕種極難故 正木貳拾伍疋 準計捧上後 五寸侄處永爲放賣爲乎…”(1816년의 명문).

회적 위상은 적극적인 토지 매입을 통해 한동리에서 경제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다. 그의 분재기는 경제 기반의 대부분이 덕경에 의해 마련된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축적된 경제적 기반은 다음 세대에서 아들 도옥이 종법상의 장남 가계를 상대로 조상 제전을 구입하여 제전을 집중해가는 토대가 되었다. 삼남 가계의 주도권 행사는 바로 이러한 과정과 함께 다져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먼저 이들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보고, 그 변화의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승고문서 중 김덕경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경제 문서로는 ‘상속과 거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분재기와 명문, 수포가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명문이다. 여기서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김덕경이 작성에 참여한 명문의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상속된 토지의 근거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분재기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재산의 축적과 유지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가장 오래된 명문은 1724년(경종 4) 현조이가<sup>25)</sup>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김덕경이 다른 토지를 구입할 때 따라온 구문기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장 늦은 것은 1915년에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와 매매신고서로, 조선후기 명문의 양식은 아니지만 토지의 매매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명문에 포함시켰다. 그 밖에 不忘記나 相換文 등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내용상 토지매매 사실을 기록한 문서들은 모두 명문에 포함시켰다.

분재기는 1734년(영조 10) 財主 金戒今이 차남 金萬重에게 상속한 衿付 문기가 가장 빠른 것이다. 상속자인 金萬重은 가첩이나 족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다만 문서에 기재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그가 덕경의 조부인 민홍의 서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sup>26)</sup> 만약 그가 짐작대

25) 명문에는 ‘玄召吏’라고 적고 있다. 명문 중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召史’ 대신 ‘召吏’로 적은 경우가 종종 있다. 1724년 12월 5일 명문 참조.

26) 상속에 관련된 두 사람은 모두 김덕경 가계의 족보나 가첩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을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를 덕경의 가계에서 전승하고 있는 점, 둘째 상속 대상인 민중이 덕경의 부친 세종과 돌림자를 쓰는 점, 셋째, 재주가 여성이면서 이름을 적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이 노비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작성의 증인으로 ‘김원산’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로 민홍의 서얼이라면 시아버지인 세종이 아들의 첩에게 토지를 상속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늦게 작성된 분재기는 1905년 태익으로 생각되는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매독한 밭을 허급한다는 내용의 ‘葉作記’[엽질기]이다.<sup>27)</sup> 그 밖에 분재기 중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부족한 祭田의 마련을 위해 미분급된 밭 중 일부를 제사용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의 ‘祭事成文記’도 포함되어 있다.

수표는 9점이 남아있어 전체 경제문서들 중 1/10 정도의 소량에 불과하다. 1778년(정조 2)의 수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표는 1820년대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시기만 놓고 보면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작성된 명문에 비해 수표는 작성시기가 비교적 늦은 편이다. 명문과 수표의 작성은 단순히 거래 형식상의 차이뿐 아니라 조선후기 매매의 주 대상인 전답이나 가옥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두 가지 행위를 둘러싼 경제적 인식이나 실제 경제적 이득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경제 문서들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각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선 후기 김덕경 가계의 경제 기반을 재구성한다. 경제 기반의 분석은 덕경의 후손들이 가계를 구성해나가는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부분적인지만 조선후기 한동리 지역민들의 경제적 기반이나 그 안정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경제문서들을 종류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하여 일람표를 작성하였다.<sup>28)</sup>

때 이 문서는 세종의 이복형제, 즉 부친 민홍의 서얼과 관련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雍正拾貳年甲寅 三月初柒日 次子金萬重衿 舅邊衿○田○員米牽肆斗付只 … 財主母金戒今 …”  
1734년 분재기.

27) 김덕경 가계에서 전승하고 있는 엽질기는 3점으로, 내용은 일반적인 허여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엽질’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엽질기’를 공문서의 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 김동석, 2005, 『葉作에 관한 一考察』, 『장서각』 14, 119~122쪽.

28) 고창석이 작성한 제주도 각지의 가문에서 발굴한 전승 고문서들의 연대별 분포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문서 생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 주체를 둘러싸고 ‘의미있는 변화의 시점’을 가능하는데 중요한 척도로써 도움이 될 것이다. 고창석, 앞의 책, 17쪽.



<표 2> 김덕경 후손들의 경제문서 작성 현황

		父 世重 (景宗)	德鏡 (英祖)	子 道玉 (正祖~ 純祖)	孫 尙履 (純祖~ 憲宗)	曾孫 英奎 (哲宗)	4代孫 義杓 (高宗)	5代 孫 泰翬 (高宗~1915)	연도 미상	계
경제 문서	분재기	(1)	5	10	3	1	2	1	1	23(1)
	명문	(1)	16(4)	4	3	2(1)	4	8(1)	4	41(7)
	수표		1	(1)	(1)	4(1)			1	6(3)
계		(2)	22(4)	14(1)	6(1)	7(2)	6	9(1)	6	70(11)

※ 각각의 숫자는 가계 구성원들의 이름이 직접 적힌 문서의 매수이다. ( ) 안에 적은 숫자는 가계 구성원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확인된 사람들의 문서를 작성 시기와 관련성을 고려해 표시한 것이다. 그 밖에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서는 ‘연도미상’ 란에 포함시켰다.

#### 4. 김덕경 가계의 경제 기반과 그 변화

김덕경 가계의 ‘거래와 상속’의 실상을 보여주는 경제관련 문서는 모두 81점이다. 여기서 각별히 눈에 띄는 점은 수량에 있어서 배에 가까운 명문의 대부분이 분재기에 나타난 토지들의 매매문기라는 점이다. 명문이 분재기의 증빙자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승문서 중 전답매매문기가 가장 많은 것은 가문마다 대개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매매문기와 분재기의 연동이 확인되는 경우는 적으며, 때문에 양자의 상관관계 속에서 한 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며 이 장에서는 김덕경 가계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과 그 변화에 주목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宣祖	光海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기타	注	계
中文						24	3	37	10	4	5		3			86
衣貴		2	2	2	10	20		8			2	2	2	1		51
長田	1			5	9	24	2	56	13	3	3	3	3	3	1	126
今岳	2	1	4	2	4	7		5	5	2	1	5	15	3	4	60
大浦							1	21	3	5	5	6	14	8		63
沙溪								12	6	20	5	7	6	8	3	67
계	3	3	6	9	23	75	6	139	37	34	21	23	43	23	8	453

## 1) 토지 매입과 상속

김덕경의 선조가 한동리로 이주한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한동리에 정착한 많은 성씨들이 처음 이곳에 정착한 광산 김씨나 제주 고씨와의 인척 관계에 따라 이주했던 것을 고려하면 김씨 가문의 이주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이들이 정착한 시기는 방축동에 집촌이 형성된 직후였다. 때문에 이곳에 김씨 가문의 경제적 기반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 가문의 경제기반은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이에 대한 단서를 분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분재기는 ‘도허’ 문기를 비롯하여 별급문기, 화회문기가 주를 이루며, 우마분급기와 엽질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상속문서로 보기는 어렵지만 ‘掃除條’ 마련을 위해 문중 사람들이 ‘和會’를 통해 재산을 분급하는 문서(표 3의 23, 24번 문서)도 2점정도 남아 있다. 다음은 분재기의 일람표이다.

<표 3> 분재기 일람표 (※는 여성을 표시함)

번호	작성 연대	財主	상속인	상속방식	상속재산	비고
1	1734년(영조 10) 3월 7일	母 金戒今※	次子 金萬重	別給	田地	
2	1764년(영조 40)	母 金召吏※	次女※	別給	田地	
3	1782년(정조 6) 4월 18일	女三寸 金召吏※	金德鏡	別給	田地	
4	1783년(정조 7) 3월 11일	金德鏡	長婦 金氏※	別給	田地	初謁日
5	1787년(정조 11) 1월 17일	金德鏡	2남 1녀	都許	田地와 家財	
6	1787년(정조 11) 1월 17일	金德鏡	2남 1녀	衿付	田地	
7	1787년(정조 11) 1월 17일	金德鏡	長男 金道玉	衿付	田地	
8	1805년(순조 5) 4월 12일	金道玉	長婦 高氏※	別給	田地와 압소	初謁日

29) 복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편, 앞의 책, 103~104쪽.

9	1816년(순조 16) 3월 15일	門中 金德仁의	四兄弟	都許(和會)	田地	
10	1816년(순조 16) 3월 15일	門中 金德仁의	四兄弟	都許(和會)	田地	
11	1820년(순조 20) 3월 25일	金道玉	尙履과 尙恒	都許	牛馬	牛馬分給
12	1820년(순조 20) 3월 24일	金道玉의 妻※	2남 6녀	都許	田地和 家財	
13	1820년(순조 20) 3월 24일	金道玉의 妻※	2남 6녀	衿付	田地和 家財	
14	1838년(헌종 4) 2월 27일	金道玉의 妻※	長孫婦 吳氏※	別給	田地	初謁日
15	1838년(헌종 4) 2월 27일	金尙履	長婦 吳氏※	別給	田地	初謁日
16	1845년(헌종 11) 4월 15일	母※	次子	別給	田地	許給
17	1845년(헌종 11) 4월 15일	嫁祖母 金氏※	夫氏※	別給	田地	
18	1871년(고종 8) 11월 18일	長子 泰日	長妹※	葉作記	田地	
19	1878년(고종 15) 1월 11일	祖 金	孫子	別給	田地	형의 손자
20	1878년(고종 15) 1월 11일	金永奎	1남 3녀	都許	田地和 家財	
21	1898년(고종 35) 3월 8일	金義杓	長女※	葉作記	田地	
22	1905년(고종 42) 2월 23일	金義杓	末女※	葉作記	田地	
23	1800년(정조 24) 5월 15일	長子 金道玉喪		父母兩位加祭 事成文記	미분급田地를 제사용으로 사용	화회
24	1816년(순조 16) 3월	長孫 金貴連의		掃除위한 토지의 분급	소제용 토지를 마련, 향후 이 토지의 轉用 금지	화회

분재기의 현황을 보여주는 위의 일람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인상적이다. 첫째, 김덕경 가계의 가족 구성원의 규모와 관련된 것이다. 일단 가첩이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없었던 딸들의 존재가 분명할 뿐 아니라 문서 내용을

분석하면 사위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도 간혹 있다.<sup>30)</sup> 게다가 별급 문기 등을 통해 인척관계에 대한 정보도 부분적으로 수집 가능해 보인다.

둘째, 상속 문서의 작성에 관한 것이다. 1787년 김덕경이 작성한 3부의 상속문서는 각각 상속의 사유와 내용을 기록한 도허문기, 2男 1女の 상속분을 구분하여 모두 기록한 깃부 문기, 그리고 장자 도옥의 몫만 별도로 기록한 깃부 문기이다. 특히 각 문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덕경이 상속과 관련하여 모두 5장의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전승 문서 중에는 없지만 차자와 딸의 깃부 문기도 별도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문기를 여러 장 작성하는 것은 아들 도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1820년의 문서 2점).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지속적으로 작성된 다수의 별급 문기들이다. 별급문기가 다수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재산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작성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며, 게다가 며느리의 결혼을 축하하는 뜻에서 작성된 별급문기는 제주도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간혹 한명의 며느리가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들—시조부 모에서 부모, 그리고 친척에 이르기까지—로부터 중첩적으로 별급을 받기도 했다는 점이다.<sup>31)</sup> 실제로 1838년에 작성된 2점의 별급문기에 따르면 영규의 처 오씨는 시할머니(도옥의 처)와 시아버지(김상리)로부터 동시에 별급을 받고 있다(작성 날짜 또한 동일하다). 게다가 시할머니는 자신이 시아버지로부터 별급 받았던 토지를 손자며느리에게 별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한편, 일람표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문서는 1816년 3월에 작성된 ‘都許’ 문기이다. 이 문서는 ‘都許與成文’으로 표기하였지만 내용을 분석하면 덕경의

30) <표 3>의 문서 14~17번까지 4건의 별급문기 말미에는 모두 ‘筆執 安宗集’의 수결이 있다. 이 문서를 통해 그가 도옥의 가계와 가까운 사이임을 추론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호구조자료와 대조하면 그가 도옥의 사위임을 알 수 있다.

31) 문속지는 제주도 별급문기의 특징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별급문기가 많고, 별급의 주체가 대부분 남성인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김덕경 가계의 경우는 별급 주체가 여성인 경우도 많아 더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문속자, 앞의 글, 212~214쪽.

32) 1838년 도옥의 처가 작성한 문기에 따르면 “...當此取婦之日 他無別許物故 吾之舅父主別給田 ... 永爲謁給爲去乎...”라 하여 손자며느리의 결혼을 맞이하여 자신이 시아버지로부터 별급받은 토지를 다시 별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형제가 ‘和會’를 통해 토지를 ‘평균분급[平均區處]’하고 있는 ‘화회문기’의 일종이다. 19세기가 되면 장자우대 및 자녀 간 차등 상속은 육지의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적인 모습을 띤다. 제주도의 경우도 서문에는 ‘화회’나 ‘균등상속’을 표방하고 있지만 상속 내용을 보면 자녀 간 차등 상속이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김덕경 가계의 경우는 19세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균등상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화회’가 양친의 사망 이후 거의 20여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sup>33)</sup> 게다가 ‘화회’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덕인과 덕완, 그리고 도옥과 귀련으로, 이미 덕경과 덕보는 사망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갑자기 ‘화회’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양친의 사망 이후 장기간 미분급 되었던 토지의 용도는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1800년(〈표 3〉의 23번문서)과 1816년(〈표 3〉의 24번문서)에 작성된 2점의 문서가 주목된다. 2점 모두 ‘掃除條’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 미분급 토지는 차후 필요할 지도 모를 제전을 위해 남겨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位土를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위토의 부족이 초래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첫 질문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1816년의 명문이 주목된다. 이 명문은 도옥과 귀련이 토지를 거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당시 귀련은 김녕리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거리가 멀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방축동에 있는 祭田을 도옥에게 방매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종법의 규범상 종손으로 볼 수 있는 귀련이 방축동을 떠난 것이다.<sup>34)</sup> 혈연 집단 내에서 덕경의 가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이 무렵일 것이다. 이는 화회문기의 말미에 기재된 수결의 순서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분재

33) 가첩이나 호구자료에 따르면 세종은 1707년생으로 1771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아내 고씨는 1704년생으로 1783년 경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씨의 사망 시기는 1783년 80세로 덕보의 준호구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을 토대로 추론했다.

34) 1820년 김도옥의 분재기에 따르면 귀련은 제전을 포함하여 한동리에 있던 2필지의 토지를 도옥에게 팔았다. 게다가 1804년 김도옥의 호적중초에는 귀련의 부친 덕보가 74세의 나이로, 아들 귀련이 아닌 도옥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다. 귀련이 한동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각주 24번 참조).

기의 서문 바로 다음에는 모두 다섯 사람의 수결이 있다. ‘門中’이란 표기 아래 차례로 있는 ‘김덕인, 김덕완, 김도옥, 김귀련’의 이름과 수결이 그것이며, 마지막에는 ‘필집 김상리’가 수결을 하고 있다. 장남 덕보의 아들 귀련이 3남 덕경의 아들 도옥보다 뒤에 수결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집 또한 도옥의 아들 상리가 맡고 있다. 덕경의 가계가 장남 덕보의 가계보다 문중의 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 일은 선조의 제전을 둘러싼 일로, 位畵이 덕경의 가계로 집중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덕경의 후손이 선조의 제전을 집중, 관리한 시기와 장남의 후손 가계가 한동리를 떠난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두 사건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게다가 세거지를 떠난 장남의 후손과 달리 덕경의 후손은 그의 토지까지 매입하며 경제 기반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은 덕경과 아들 도옥이 자식들에게 상속한 재산 분급 내역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4> 1816년 김덕경 재산의 상속 현황 (※는 여성을 표시함)

분급 내역							
	地境	取得經緯			地境	取得經緯	
장자 도옥	상부사원	부태웅處	매득전	차자 도철	수덕원	삼촌처	매득전
	돌선원	현창해처	매득전		대답원	홍수범처	매득전
	방축동원	처변	유래전		방축동원	○단처	매득전
	방축동원	오도정처	매득전		적지원	홍제천처	매득전
	대지원	문덕형처	매득전		가좌전	홍호범처	매득전
	대지원	처변	유래전		광의령원	송필언처	매득전
	적지원	김후원처	매득전		생글원	문번처	매득전
	환리내원	문창성처	매득전		대석원	김조이처※	매득전
	구리내원	부태웅처	매득전		전차역원	문덕형처	매득전
	구리내원	婁士×처/홍하행처	매득전		왕노구음원	홍조이처※	매득전

	생글원	고두정처	매득전	딸	방죽동원	김씨처	매득전
	주고수원	문 번처	매득전		입돌선원	홍용해처	매득전
	돈두수원	김석무처	매득전		입돌선원	처변	별득전
	돌혈원	김조이처	매득전		입돌선원	처변	금득전
	마락원	홍치범처	매득전		왕가망원	장필방처	매득전
	마락원	이광윤처	매득전		구리내원	처변	유래전
마락원	부 씨처※	매득전	가좌전		수덕원	○단처	매득전
	·	·			구리내원	김수억처	매득전
	장자처급복변	·			당목전원	·	·
대수굴원	처변	유래전	랑립원		김창해처	매득전	
대수굴원	처변	유래전	생글원		처변	유래전	
일돌선원	처변	유래전	적지원		김상식처	매득전	
귀마통원			박작원		처변	유래전	
유상원	처변	유래전					
장기도원	처변	유래전					
장기도원		매득전					
內外掃墳條 吾矣祖先掃墳祭條	과비원						
妻父	대수굴원						
財主夫妻 掃墳祭	구시남원						

덕경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분재기 서문에 따르면 그는 나이 50살이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했다. 서문에는 ‘평균 분급’을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속된 내역을 보면 ‘소제조’를 별도로 떼어놓고도 장자 도옥의 몫이 동생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르면 장자우대 상속이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옥이 상속받은 토지를 살펴보면 전부

‘買得田’임을 알 수 있다. 流來田이 일부 보이지만 모두 ‘妻邊’ 유래로 모친인 완산 이씨 쪽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분재기에 ‘처부’ 소제조가 마련된 이유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덕경은 자신의 부친인 세종으로 부터는 물려받은 토지는 전혀 없는 셈이다.

토지의 취득 경위는 두 동생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차남 도철과 딸, 두 사람도 모친쪽 재산을 제외하면 매득전만 상속받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친 덕경이 자신의 노력으로 토지를 매득하여 재산을 축적한 다음 이를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덕경의 부친 세종의 경제 기반은 대단히 적거나 거의 없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김덕경의 가계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그것은 덕경의 개인 역량에 상당부분 의존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덕경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처변’ 유래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처변 유래전은 전체 상속의 1/4, 즉 25% 정도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덕경의 재산 형성에 처가의 풍족한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비교적 큰 규모의 ‘처변 유래전’을 상속하는데 있어 차자 도철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모습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가족 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호구자료에 따르면 도철은 빠르게 보아도 1775년생으로 1763년생인 형 도옥과는 거의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sup>35)</sup> 둘이 이복형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덕경은 첩을 두었으며,<sup>36)</sup> 그녀는 덕경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이후 도철이 분가를 할 때 첩이었던 모친도 함께 분가하였다). 도철은 바로 덕경의 집에 함께 살았던 첩 김조이의 아들로, 서얼인 셈이다. 그가 모친 소유의 토지를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그가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친 완산 이씨의 토지는 자신의 친자인 장남 도옥과 딸에게 거의 균등하게 상속되고 있다.

35) 아들 상호의 출생일을 고려하면 도철이 태어난 해는 1784년이 타당해 보인다.

36) 첩의 존재는 1783년 김덕경의 준호구에서 처음 나타난다. 당시 첩 김조이는 본처인 완산 이씨보다 5살이 어리다. 그러나 1795년 준호구에는 두 사람의 나이를 같게 기록하였다. 덕경의 사후 완산 이씨는 장남 도옥과 살았고, 첩 김조이는 1804년 도철의 호적증초에 기재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처변 유래전’의 상속에서 서얼 도첩을 배제한 것이 과연 이씨 부인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씨 부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면 제주도에서는 18세기 말까지도 여성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그의 의견이 친족 구성원들에게 수용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듯 덕경의 재산 증식이 상속 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사실은 이후 이 가계의 향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덕경이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갈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의 사회적 지위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개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혈연집단 내에서 그의 높은 위상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해졌다. 덕경의 경우 삼남으로 혈연 집단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재산의 증식은 이후 그의 후손들이 혈연 집단 안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문중 조직과 같은 집단의 결속력이 아직 확고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역량이 여전히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유교 의례의 정착 여부에만 주목해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 밖에 상속 문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상속 재산의 지리적 위치는 한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력이 미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속 토지의 취득 경위는 세중의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전후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재배 작물은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한동리의 경우 도정 과정이 복잡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드문 ‘米牟(쌀보리)’의 재배가 두드러짐으로써 토지의 운용 및 노동력 이용과 관련하여 차후의 연구를 기대하게 한다.<sup>37)</sup>

37) 원문이 소개된 제주도 지역의 전승문서들을 분석해보면 ‘쌀보리’가 재배된 지역은 많지 않다(고창석, 앞의 책; 김동진, 1998 참조). 한동리 주민의 구술에 따르면 쌀보리의 재배는 공정에 비해 이윤이 크지 않아 1960년대 전후부터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추론은 도옥의 상속 문서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도옥의 상속 내역을 작성한 것이다.

<표 5> 1820년 김도옥 재산의 상속 현황 (※는 여성을 표시함)

상속토지							
	地境	取得經緯			地境	取得經緯	
長子 尙履	가지	김귀런처	매득전	次子 尙恒	가 지 원	유래전	
	里 內 員		유래전		리 내 원	유래전	
	里 內 員		유래전		대 지 원	유래전	
	방축동원		유래전		대수동원	유래전	
	대 지 원		유래전		복동사원	유래전	
	복동사원		유래전		대 퇴 원	유래전	
	돌 혈 원		유래전		가삼이원	홍치일처	매득전
	돈도수원		유래전		마 락 원		유래전
	마 락 원		유래전		동 원		유래전
	마 락 원		유래전		담장지원		유래전
	마 락 원		유래전		초가 3간 2채		
	초가 3간 2채						
	長女	적 지 원			유래전	次女	동 소 원
마 장 원		고응추처	매득전	구리내원			매득전
황시설원			유래전	고복이전원			유래전
次女	대수동원		유래전	次女	조익수원	김귀런처	매득전
	전석장원		유래전		구리내원		유래전
	동 원		유래전		박마도원		유래전
次女	대 지 원		유래전	次女	돌 혈 원		유래전
	통수전원	문덕빈처	매득전				
次女	수 덕 원	김중런처	매득전	吾矣 夫妻掃祭	방축동리내원		유래전
	임돌선원		유래전		인 석 여		유래전
	성강수원	이보현처	매득전				
	구시남원		유래전				

위 문서는 1820년 도옥의 사후 그의 아내 경주 김씨가 門長 김덕인과 장자 상리가 배석한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다. 덕경의 분재기와 비교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득전의 비율은 10% 내외로 대폭 줄어든 반면 유래전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다. 이들 가계의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도옥이 상속받은 규모보다 그가 8명의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거의 1.5배 정도 커졌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도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큰 위기 없이 잘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증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분재기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도옥이 귀련으로부터 매득한 토지의 존재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귀련은 1816년 방축동에 있던 '祭田'을 도옥에게 방매했다(〈표 3〉의 29번 문서). 명문을 보면 당시 도옥이 귀련에게 구입했던 토지는 1곳으로 나온다. 그런데 상속문서에 따르면 도옥이 구입한 곳은 2곳으로, 이 중 한 곳은 동쪽으로 삼촌 덕완의 집터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귀련의 세거지 이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김씨 가문 구성원들이 상당히 인접하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가문의 구성원들이 인접해서 살았다는 증거는 토지의 四標를 밝히고 있는 상속 문서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편, 상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들과 딸 사이에는 상속 규모에 있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아들 간, 또는 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적어도 도옥의 상속 문서에서는 적장자가 뚜렷하게 우대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경향은 덕경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덕경의 상속 문기를 보면 장남 도옥의 몫이 차남 도철에 비해 2.5배 가까이 많다. 얼핏 적장자가 우대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적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정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도철이 '서얼'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처변 유래전'이 아들과 딸에게 거의 공평하게 분급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도철이 서얼이 아니었다면 그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모친의 재산을 상속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친의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과 딸이 차별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시집을 가게 될 딸과 달리 아들들은 여전히 평균분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1816년에 작성한 형제들의 화회문기가 실제로 ‘균등 분배’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덕경의 가계에서 적장자 우대 상속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좀 더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

도옥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도옥의 대에 작성된 상속 관련 문기는 위의 ‘도허’ 문기 외에도 여러 점의 별급문기가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1805년 며느리 고씨(상리의 처)의 결혼을 맞아 매득전과 암소 한 마리를 별급한 별급문기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암소의 소유 여부가 드러난다. 다른 하나는 財主를 처 김씨로 하여 1820년 3월 아들 상리와 상항에게 발급한 우마 분급기이다. 말 그대로 아들 상리와 상항에게 각각 암말 1필과 암소 1필씩을 분급한다는 내용의 별급 문기이다. 형제에게 우마가 균등하게 분급된 것이다. 이 문기의 서문에는 재산 분급시 수가 적어 미처 분급하지 못했던 우마를 형제에게만 분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2남 6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도허’ 문기의 작성 바로 다음날이다.

이렇듯 도옥의 상속 문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증식시켜 자식들에게 상속하였다. 그리고 그의 재산에는 덕경의 대에는 보이지 않던 우마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옥이 토지 외에도 우마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음을 시사한다. 전승하고 있는 가첩이나 묘지명에 따르면 가계 구성원들 중 일부의 묘가 인근 송당리에 있던 목마장(1所場) 안에 위치하고 있다. 도옥의 우마 소유와 더불어 이들이 목마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덕경과 도옥의 분재기를 중심으로 이들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처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덕경 때였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던 덕경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처가의 경제적 지원<sup>38)</sup> 재산 증식에 힘을

38) <표 6> 중 문서 10번은 1765년 작성한 것으로, 홍유행은 병술년 失火로 김덕경의 장모에게 빌려 쓴 값을 갚을 길이 없자 자신의 밭을 김덕경에게 방매하고 있다. 빌려준 사람은 장모인데 밭가를

실어주고 있다. 덕경이 축적한 재산은 근거가 되는 명문과 함께 자식들에게 상속되었다. 2남 1녀로 자식의 수가 비교적 적었던 것은 재산이 분산되지 않고 유지되는데 일정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이후 장남 도옥은 상속받은 재산을 유지, 여기에 새로운 재산을 더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도옥이 작성한 여러 점의 상속 문기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도옥은 우마나 가옥의 분급을 명시함으로써 그가 토지 이외 다른 경제적 기반들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토지 매매와 한동리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

김덕경 가계의 명문의 다수는 분재기와 연동되어 있다. 특히 덕경은 다수의 매득전을 구입, 상속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명문을 함께 상속하였다. 김덕경 가계의 전답매매 실상을 보여주는 명문은 48점으로, 이 중 덕경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20여 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명문의 50%에 조금 못 미치는 분량으로, 덕경이 토지의 매입에 적극적으로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장자 도옥에게 상속된 토지의 50%는 증빙문서의 성격을 지니는 명문을 통해 토지의 취득 경위를 밝히고 있다. 아마 재산 축적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는 명문의 일람표이다. 덕경의 가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래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후기 한동리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하였다.

---

받은 사람은 김덕경이다. 처가의 재산이 덕경에게 상속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덕경이 작성한 분재기에 처가의 '소제조'가 별도로 표기된 것도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표 4> 참조.

&lt;표 6&gt; 명문과 그 내용

번호	작성 연대	발급자	수급자	방매사유	매매 토지		구문기 양도여부
					취득 경위	작물	
1	1724년(경종 4) 12월 5일	高汝隆	玄召吏※	·	조상유래전	米牟	·
2	1733년(영조 9) 7월 23일	朴昌信	私奴 春山	흉년	조상유래전	·	미양도
3	1746년(영조 22) 7월 17일※※	玄氏※, 第 玄氏※	李才星	흉년	유래전 (父의 유언전)	米牟	미양도
4	1751년(영조 27) 8월 9일	趙起完氏	金昌成	흉년	조상유래전	麻子	미양도
5	1754년(영조 30) 8월 17일	夫萬起	爲 日眞※	要用所致	조상유래전	米牟	미양도
6	1756년(영조 32) 11월 29일	高貴迪	良女 日眞※	요용소치	조상유래전	米牟	미양도
7	1761년(영조 37) 6월 21일※※	玄昌友 외	金德鏡	제사비용 마련	조상유래전	粟	미양도
8	1763년(영조 39) 7월 12일※※	前鄉 吳道澄	金德鏡	흉년	매득전	米牟	미양도
9	1764년(영조 40) 20~21일※※	高萬釋	金德鏡	要用所致	·	粟種	·
10	1765년(영조 41) 12월 13일※※	洪有行	金德鏡	병술년의 실화(失火)	조상전	麻子	·
11	1765년(영조 41) 2월 19일※※	私奴 福金	文儒	要用所致	매득전	粟種	양도
12	1765년(영조 41) 3월 4일※※	金秀謙	金德鏡	흉년	유래전 (外祖 전매득전)	粟種	양도
13	1765년(영조 41) 7월 2일	夫泰翁	金德鏡	제사비용 마련	유래전(祭田)	米牟	미양도
14	1766년(영조 42) 1월 29일	姜召吏※	金德鏡	흉년	유래전 (舅의 유래전)	租種	미양도
15	1766년(영조 42) 6월 23일※※	미상※	金德鏡	要用所致	매득전 (父에게서 매득)	米牟	양도
16	1770년(영조 46) 1월 11일	夫泰翁	金德鏡	要用所致	조상전	粟種	미양도
17	1770년(영조 46) 6월 12일※※	金○謙	金德鏡	要用所致	매득전	粟種	미양도
18	1771년(영조 47) 12월 27일※※	文德亨	金德鏡	還上의 어려움	조상유래전 (家基田)	米牟	미양도
19	1773년(영조 49) 1월 15일	高行九	金氏※	·	·	米牟	·
20	1774년(영조 50) 8월 8일※※	吳時札	金德鏡	還上의 어려움	매득전	粟	양도
21	1785년(정조 9) 12월 13일	高召吏※	金麗雄	흉년	유래전 (父의 매득전)	米牟	·
22	1785년(정조 9) 12월 13일	婢 順每※	金麗雄	흉년	매득전	粟種	·
23	1787년(정조 11) 1월 17일	吳仁才	金德鏡	제사비용 마련	·	粟種	미양도

24	1787년(정조 11) 1월 17일	李庄殷	金道玉	흉년	유래전 (父의 매득전)	米牟	양도
25	1792년(정조 16) 12월 25일	金宗喆	金德鏡	.	유래전 (祖父의 별득전)	米牟	미양도
26	1794년(정조 18) 11월 3일	金氏※	李召吏※	제사비용 마련	장자 몫의 밭	米牟	양도
27	1795년(정조 19) 1월 25일	高應○	金道玉	흉년	조상유래전 (가기전)	米牟	.
28	1795년(정조 19) 6월 19일	金雲○	金德鏡	要用所致	유래전 (조모 전매득전)	米牟	미양도
29	1816년(순조 16) 4월 5일	金貴連	金尙履	거리상 경작의 어려움	유래전(분체조)	米牟	.
30	1827년(순조 27) 7월 8일	金尙彬	金尙履	흉년	매득전	粟種	양도
31	1836년(헌종 2) 4월 21일	吳氏※	金尙履	제사 비용 마련	유래전	粟種	미양도
32	1859년(철종 10) 2월 14일	吳宗兵	金英奎	要用所致	매득전	粟種	양도
33	1861년(철종 12) 11월 2일	安繼○	金永奎	.	매득전 (처의 매득전)	米牟	미양도
34	1875년(고종 12) 1월 20일	吳昌元	金義杓	.	.	粟種	.
35	1876년(고종 13) 1월 20일	金以寬	夫氏※	要用所致	매득전	粟種	양도
36	1894년(고종 31) 4월 3일	吳氏※	金泰翊	要用所致	매득전	.	.
37	1904년(고종 41) 12월 10일	高用浩	金永輔	要用所致	매득전	米牟	양도
38	1905년(고종 42) 3월 25일	高量追	夫氏※	要用所致	執給田	米牟	양도
39	1906년(고종 43) 12월 17일	金文輔	金泰翊	要用所致	유래전	粟種	
40	1906년(고종 43) 2월 26일	金昌允	金泰翊	要用所致	매득전	粟種	
41	1906년(고종 43) 2월 26일	金昌允	金泰翊	要用所致	매득전	粟種	
42	1907년(고종 44) 1월 23일	李應圭	金泰翊	要用所致	유래전	粟種	
43	1907년(고종 44) 12월 3일	金景煥	金英賢	要用所致	매득전	稷種	
44	연대미상	金義杓	미상		미상	미상	
45	1915년 5월 3일	賣渡人 安斗允	買受人 吳昌弘	사유없음	.	皮牟	
46	1915년 7월 20일	吳昌弘	金泰翊	사유없음	.	皮牟	
47	1915년 7월 20일	吳昌弘	金泰翊	사유없음	.	皮牟	
48	1915년 8월 2일	吳昌弘	金泰翊	사유없음	.	皮牟	

※ 표시는 여성을 나타낸다. 발급자가 여성인 경우 右手寸으로 수결을 대신하고 있다.<sup>39)</sup>

※※ 표시는 도록이 상속받은 토지의 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시기는 1724년부터 1915년까지 거의 200년에 이른다. 덕경의 대에 작성된 것을 제외하고도 세대별로 몇 점씩 남아있어 덕경의 후손들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매는 대부분 인근의 다른 가문들과 이루어졌지만, 간혹 혈연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sup>40)</sup>

토지의 매매, 특히 放賣가 이루어진 원인은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만 대체로 ‘긴히 쓸 곳이 있어서(要用所致)’나 흉년인 경우가 많다. 작성 시기가 좀 더 빠른 제주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還上’이 방매의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시기도 있었지만<sup>41)</sup> 한동리의 경우는 2건 정도로 비중이 매우 적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후반으로 갈수록 흉년에 비해 ‘요용소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늦어도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자연재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또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시사한다.<sup>42)</sup>

그런데 이 현상을 토지를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 주목하여 바라볼 경우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흉년을 이용해 토지를 집중 매득했을 때 불러올 수 있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고 매득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구매자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지양반들의 경제적 행위가 지역사회에서 가문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나 명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매사유의 기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1910년대 이후부터이다.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토지 매매 증서의 양식이 바뀐 탓도 있었지만 토지의 매매가 더 이상 긴장을 불러오지 않을 만큼 거래량이 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9) 명문의 말미에는 田畵主와 증인 등이 手決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은 수결 대신 手寸, 즉 그의 손가락 마디를 문서에 대고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남성은 左手寸을 여성은 右手寸을 그린다. 고창석, 2001, 앞의 책, 244쪽 참조.

40) 1816년의 명문처럼 사촌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표 6>의 15번 문서처럼 부자 사이에 상속이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을 정황도 보인다.

41) 장전리 강태복씨 소장 of 전답문서들 중에는 방매사유가 ‘還上의 어려움’인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고창석, 앞의 책, 225~227쪽.

42) 진관환, 2012,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탐라문화』 41, 348쪽.



한편, 위의 일람표는 김덕경 가계의 구체적인 매매 실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한동리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규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19세기 초반까지 ‘유래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유래전은 상속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게 된 토지로 유래전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이 적어도 2세대 정도는 토지를 안정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동리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매득전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곧 19세기 초·중반을 지나면서 한동리에서 경제적 변동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매매대상으로서 토지의 가치가 이전보다 상승했거나 혹은 토지의 가격이 점차 안정되었다는<sup>43)</sup>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음 근거로는 명문 말미에 기재된 舊文記(本文記)의 양도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등 매매의 성립은 新文記라는 토지매매 명문의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은 이전된다.<sup>44)</sup> 간혹 토지 중 일부만 매매를 할 경우 다른 토지들이 併記되어 있는 구문기를 양도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때는 반드시 구문기를 양도하지 못하는 사유를 신문기에 밝히는 것이 통례였다. 여기서는 구문기를 양도하지 못하는 비율에 주목하여 한동리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추론해보았다. 김덕경 가계의 전승 명문들 중 구문기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문서의 말미에는 언제나 ‘本文記段 他田並付仍干 不得許給爲去乎…’라고 쓰고 있다. 대부분 다른 토지가 병기되어 있어 구문기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곧 토지 방매자가 방매하는 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를 더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 구문기를 양도하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매득전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19세기 초반 한동리 지역사회의 경제적 변동이나 토지를 둘러싼 경제

43) 명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제주도 지역 다른 가문의 명문을 보면 빌려 쓴 물품의 대가를 갚지 못해 토지를 방매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마다 매매가치가 다른 편이다. 이는 김덕경 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창석, 앞의 책, 234쪽.

44) 채현경, 2011, 『조선후기 토지매매의 구문기 양도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38, 127쪽.

적 상황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덕경 가계의 전승문서들 통해 추론한 결과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았던 한동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례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이 고씨, 오씨, 김씨의 집성촌이며, 높은 촌락내촌 비율과 혈연집단이 인접하여 거주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앞의 추론에 좀 더 힘을 신게 된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은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중조직 등 구심점을 가진 집단들의 공동활동이나 공동재산의 운영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김덕경 가계의 거래 양상은 수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래는 전승 수표의 작성연대와 발급자, 수급자만 정리하여 일람표로 만들었다.

<표 7> 수표와 그 내용

번호	작성 연대	발급자	수급자	비고
1	1778년(정조 2) 7월 28일	金銀重	金德鏡	
2	1820년(순조 20) 3월 25일	金道喆	長兄嫂	
3	1833년(순조 33) 3월	金寬緝	金尙允	
4	1862년(철종 13) 3월 4일	金永奎	金進學	
5	1862년(철종 13) 8월 27일	金永奎	高孟淑	
6	1863년(철종 14) 1월 13일	三寸 吳氏	金永奎	
7	1868년(고종 5) 4월 22일	安用伯	金永奎	
8	甲子, 5월 8일	鄭遠禮	金宅門中	
9	庚午, 1월 5일	安○	吳永嘗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778년 문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표는 19세기에 작성되었다. 18세기 초반부터 작성되었던 명문과 비교하면 수표의 작성 시기는 상당히 늦은 편이다. 수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수표가 그렇듯이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중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문서 유형으로 생각되는 수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1863년과 1868년에 작성된 ‘拮拏文記’ 2점이 그것이다.

1863년에 작성된 문서는 삼촌 오씨(右手寸으로 보아 여성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와 김영두, 그리고 외손이 수절을 하고 자필로 김상호가 수절을 하여 主孫 김영규에게 작성해 준 문서이다.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름이 아니라 5촌 상호가 타인과 錢文을 거래한 후 그것을 잃은 지경에 처하자 우리 문중(我門中)이 논의를 해보았으나 전문價 30필이 나올 만한 길이 없어 선대의 祭田 구수목전원 米牟 9斗付只를 부득이 타인에게 방매하여 그 값을 正木 60필로 계산해 받은 후 30필은 5촌에게 주어 (빚을) 갚게 하고 또 30필은 주손(영규)에게 몫으로 주어서 마무리한 후 구비(成置)해 둔다는 뜻으로 이 문기를 작성하였으니 이후에 자손들은 이를 상고(相考)해 보라.”

이 내용에 따르면 이 문서는 조상 제전의 처분에 대해 문중 책임자인 영규에게 그 경위와 처리 과정을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차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런 문서의 사례를 접하지 못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추론이 맞다면 이 문서는 거래의 실상 뿐만 아니라 김씨 가문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덕경의 후손인 영규가 ‘주손’으로 지칭되며 조상 제전의 처분에서 구성원들의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은 각별하다. 그러나 이 문서의 성격을 확정짓기에는 사례 수가 너무 작다. 때문에 여기서는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된 수표 양식의 일종으로만 언급하겠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방대한 고문서를 중심으로 상속과 거래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한동리 김덕경 가계의 경제적 기반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덕경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완산 이씨와의 혼인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적 기반은 그의 가계가 삼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후손들이 한동리 김씨 가문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차지, 종손 가계로 인식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분재기와 명문, 수표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김덕경의 분재기는 그가 자신의 사회적 기반과 역량, 그리고 처가의 재산을 바탕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조와 자기 부부, 장인의 소재조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상속에서 위답의 마련과 운영을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다수의 명문은 김덕경이 매득한 토지의 증빙서류로서 아들에게 같이 전승되었다.

김덕경이 마련한 경제적 기반은 아들 도옥에 이르러서도 큰 위기 없이 오히려 재산을 증식하는 토대가 되었다. 나이가 도옥은 한동리를 떠나는 장남의 후손으로부터 조상의 제전을 구입하였다. 이는 조상을 위한 제전을 이들 가계로 집중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위답의 관리와 처리는 덕경 후손들의 책임 아래 놓였다.

이러한 과정은 덕경의 후손들이 무임직을 벗어나 삼성사의 장의사 유향소 별감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씨 가문 내에서 덕경의 후손이 家牒과 忌日錄을 작성하여 선조에 대한 기억을 체계화시키고, ‘문중’을 끌어가는 대표자임을 자임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문화적 행위들이다.

덕경의 가계가 한동리 김씨 가문에서 주도적인 가계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다른 가계들은 離散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남의 가계는 한동리에 있던 조상을 위한 제전을 덕경의 후손에게 방매한 후 인근 지역으로 이주했다. 다른 가계들 또한 한동안 한동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했

다. 특정 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해 주도권을 행사했다면 거기에는 이들 가계의 역량과 더불어 다른 가계들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처럼 김덕경이 삼남이면서 그의 후손들이 점차 종손 가계로 굳어지던 데에는 다른 가계의 부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계들 사이의 불균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김덕경 가계의 사례 연구는 경제적 기반이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명문과 분재기는 특정 가계의 상속과 거래의 실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김덕경 가계의 명문을 분석하면 조선후기 한동리 지역민들은 적어도 2세대 정도는 토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덕경과 그의 아들 도옥이 매입한 토지들이 대부분 '조상유래전'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안정성은 1820년을 전후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명문에서 '조상유래전'보다는 '매득전'의 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구문기의 제공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특정 가계를 넘어서 한동리 지역민들의 경제 기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사례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여기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역사적 자료를 발굴, 활용하는 것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자료

이옥부·이훈상, (근간), 『조선후기 제주도 한동리 김해 김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비변사등록』

朝鮮總督府 편, 1918, 『朝鮮五万分一地形圖[25-1-3]: 金寧(濟州島北部三號)』, 陸地測量部.

조선총독부, 1914, 『全羅南道 濟州郡 舊左面 漢東里 原圖』(국가기록원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4, 『제주 어도 진주 강씨 조천 김해김씨 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4, 『제주 애월 수산리·중엄리·하가리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108.

김해 김씨 신방계 종친회, 1999, 『金海金氏左政丞公派 信邦系世譜』, 내내로전자출판.

복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편, 1997, 『둔지오름-한동리지』, 경신인쇄사.

논저

강창룡 외, 1997,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고창석, 2001, 『제주도고문서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랜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이창기,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泉靖一 著, 김종철 역, 2014, 『제주도』, 여름언덕.

권오정, 2003,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율과 촌락 내 혼인관계』, 『제주도연구』 23.

권인혁, 1996, 『조선후기 지방관 재정의 운영실태-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

김건태, 2009, 『18~19세기 제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대동문화연구』 65.

김경란, 2007, 『호적과 민적을 통해 본 제주 지역사회의 구조와 갈등』, 『대동문화연구』 57.

김동석, 2005, 『葉作에 관한 一考察』, 『장서각』 14.

김동진, 1997,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강창료 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김동진, 1998, 『조선후기 제주고씨 일가의 호구자료 분석』, 『탐라문화』 19.

김창민, 2010, 『호적중초에 나타난 19세기 제주도 가족과 가구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오영교, 1986, 『조선시대 지방관청 재정과 식리활동』, 『학림』 8.

윤인수, 2009, 『일제시대에 발생한 대한제국시기 임명장 위조의 양상과 사회적 배경: 농촌의 신분의식 잔존 양상과 관련하여』, 『고문서연구』 34.

이성임, 2007, 『19세기 제주 대정현 읍치 거주민의 혼인양상』, 『대동문화연구』 57.

진관훈, 2012,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탐라문화』 41.

채현경, 2011, 『조선후기 토지매매의 구분기 양도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38.

허원영, 2013, 『19세기 제주도의 호적제 운영과 가족제도의 변화』, 『장서각』 30.

허원영, 2014, 『제주 애월읍 수산·중엄·하가리 고문서와 조선후기 제주의 부세운영』, 『제주 애월 수산리·중엄리·하가리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108.

# Lineage and Economic Basis of Kim Deok-gyeong Family in Handong-ri of Jeju in Late Joseon Period

– Focused on Documents on ‘Inheritance and Transaction’ of Kim Deok-gyeong Lineage –

Lee, Ok Bo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through which a lineage hold a prominent position among a family group in Handong-ri of Jeju, focusing on its economic basis. I analyze a large number of old documents handed down by Kim Duck kyung’s lineage for this study. As well known, there are not many cases of well-preserved old family documents being discovered in the region of Jeju and, as a result, the studies on an individual lineage as well as on households in this region have been rare. Therefore, the study presented in this paper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it attempts to reveal the economic basis of an individual lineage based on the rare old family documents but also because such rare study will substantially contribute to our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local history of Jeju. The focus is placed on serial changes in the Kim’s lineage whose members were not the eldest son’s descendents but the decedents of the third son who have later taken over the role of the patriarch. In addition to the transmission of the old documents through the third son’s lineage, the fact that they, i.e., the third son’s descendents, had collected and administered many lands for Ancestral Memorial Services shows the characteristic of these changes well. The role of their lineage increased as the

---

\* Dong-A University

elevation of their economic status. Meanwhile, the eldest son's descendents emigrated into a nearby region, and in the new region they failed to establish a firm economic basis which would have been required to maintain the leading role and exert influences on extended family members. This is why Kim Duck kyung's descendents have taken the leading roles instead of the eldest son's.

This study traces the specific changes in this process by analyzing Bunjaemungi(分財記), Myeongmun(明文) and other economic documents. It didn't accord closely with a common practice in late Chosun that non-eldest son's descendents collected and owned lands, called Wi-to(位土), intensively, leading to a dominant position as Jongson or the head family.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rare in Korea that a new lineage emerges by the decedents of a social and political celebrity.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careful not to interpret its result as the peculiarity of Jeju. But instead, I attempt to present the result as the evidences of showing the diversities in establishing the lineages. The current paper is my first study to focus on the analysis of old family documents that show both the process for Kim's lineage to establish their economic basis and the changes in the process. This study provides a good example showing the importance of the economic basis when lineages were formed. I plan to carry out follow-up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basis and the social status utilizing old family documents

Key Words : late Chosun, Jeju, lineage, economic basis, inheritance, transaction,  
Records of Property Inheritance(Bunjaemungi, 分財記),  
Land Trade Contracts(Myeongmun, 明文), military position